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5 |

11

<http://www.ucac.or.kr>



울산시립무용단 제36회 정기공연

강 생 포

카르멘

2015. **11.12**(목) ~ **13**(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ontents

04_ 기획공연

모닝콘서트

08_ 시립예술단 공연

시립교향악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시립무용단 「장생포 카르멘」

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시립예술단 「2015수능음악회」

16_ 기획전시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박하늬 展

18_ 예술을 말하다

함께하는 공연예술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조하나의 Arts Friend

31_ 11월 공연 · 전시가이드

공연 · 전시 길라잡이

35_ 공연 · 전시일정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11월호 통권 189호

문예회관, 오는 11월 24일 아홉 번째 모닝콘서트 개최

아홉 번째 이야기

메타모르포젠, 칠중주와 팔중주



해설 / 김용진



Violinist / 김주은



Violist / 김예슬

2015 모닝콘서트

“실내악의시대”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2015 모닝콘서트”는 “트리오 아토”와 “콰르텟9”이라는 두 실내악팀이 순차적 또는 협연을 통하여 Competition(경쟁)구도로 매일 공연되고 있다.

연주자들의 연주력을 최대치로 높이고 그것을 통해 관객들과의 좋은 에너지를 교환하는 장이 되고 있다.

전문해설가 중심의 해설음악회를 탈피하고 연주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음악적해석을 설명하므로써 보다 진지하면서도 유익하고 혹은 유쾌한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회부터 듀오, 스트링트리오, 피아노트리오, 현악사중주, 피아노4중주 그리고 이번 11월에는 칠중주와 팔중주 구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1. 24(화) 오전 11시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1회)

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티켓가격 : 전석 1만원 (유료회원 30%, 단체 20% 할인)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울산문화예술회관 MORNING CONCERT 2015 『실내악의 시대』

9회 : 11/24(화) 메타모르포젠, 칠중주와 팔중주(Septet & Octet)

해설 : 김용진

연주 : 김주은(바이올린), 나은아(바이올린), 임흥균(바이올린), 김예솔(바이올린), 이항석(비올라),
안은지(비올라), 우미영(첼로), 오승규(첼로), 이준일(콘트라베이스)

R. Strauss Metamorphosen for 23 Solo Strings (2 Vns, 2 Vas, 2 Vcs, Basso)

2차 대전으로 무너진 조국 독일을 바라보는 80대의 노대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참담한 마음이 담긴 명곡이다. '23인의 현악기 독주자를 위한 메타모르포젠'이란 제목을 갖고 있지만, 바이올린 10대, 비올라 5대, 첼로 5대, 더블베이스 3대의 편성을 바이올린 4대, 비올라 2대, 첼로 2대, 더블베이스 1대의 소편성으로 축소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F. Mendelssohn Octet for Strings Op.20 3rd mov. and 4th mov. (4 Vns, 2 Vas, 2 Vcs)

소년 시절 작곡한 작품이지만 이미 성숙한 멘델스존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현악팔중주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이 곡은 멘델스존 자신도 "교향곡 풍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각 파트의 연주자들의 능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3악장과 네 개의 주제가 등장하는 활력이 넘치는 4악장이 유명하다.

MORNING CONCERT 2015



Violist / 나은아



Violist / 안은지



Violinist / 임흥균

D. Shostakovich 2 Pieces for String Octet No.1 and No.2 (4 Vns, 2 Vas, 2 Vcs)

쇼스타코비치의 첫 번째 교향곡이 작곡되던 해에 함께 작곡되었던 또 다른 걸작이 바로 현악팔중주다. 전혀 다른 느낌의 두 개의 소품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엄청난 음악성을 알 수 있는 곡이다. 거의 교향곡에 맞먹는 규모가 놀랍고, 제 1바이올린이 신들린 연주를 보여준다.

P. Tchaikovsky Serenade for String Op.48 1st mov (4 Vns, 2 Vas, 2 Vcs)

차이콥스키는 모차르트를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하여 모차르트가 즐겨 쓰던 당시의 양식을 차용하여 곡을 쓰고 제목 또한 '세레나데'라고 붙인다. '러시아적 우수'로 표현되는 차이콥스키의 주된 분위기에 기 반하면서도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살아있는 관현악의 명곡이다. 1악장의 주 멜로디는 "과연 차이콥스키"라는 생각이 들만큼 절절하다.



Violist / 이향석



Cellist / 우미영



Cellist / 오승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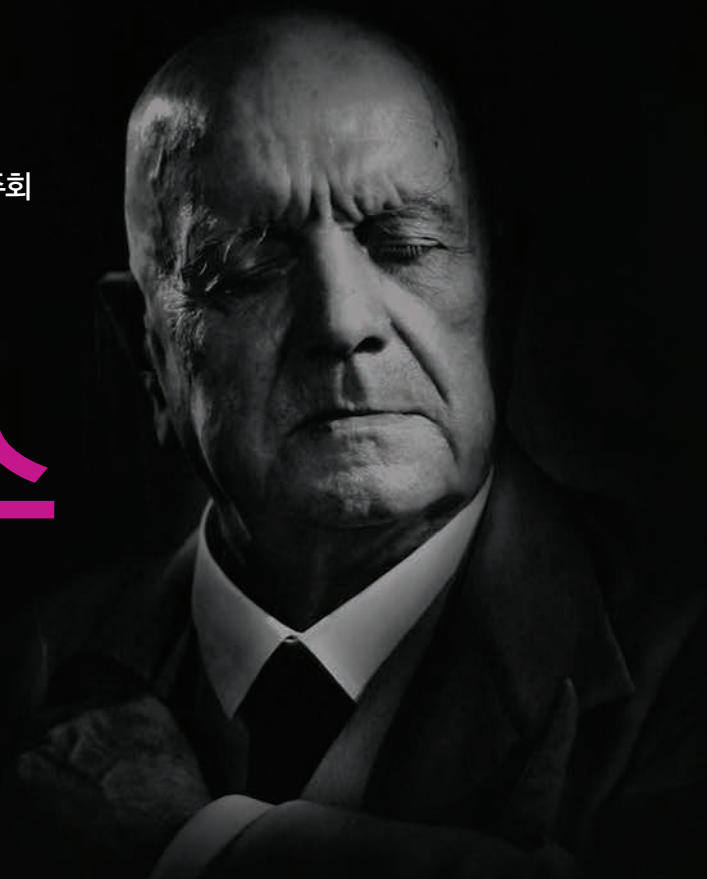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Premium Series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The 150th Anniversary of Jean Sibelius



지휘 / 김홍재



피아노 / 김나영

고품격 정통 클래식을 선도해 나가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1월 20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핀란드 국민음악의 창시자 '장 시벨리우스'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프리미엄시리즈를 개최한다.

시벨리우스[Jean Sibelius(1865-1957)]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65년 12월 8일에 핀란드의 헤미린나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작곡을 배웠으며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들어가 법률을 배우는 동시에 헬싱키음악원에도 입학하며 지속적인 음악공부를 했다. 이후,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등지로 유학을 다니면서 작곡법과 기악법을 익혔는데 유학생생활을 지내는 동안 핀란드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핀란드 헬싱키음악원 교수로 지내며 총 7개의 교향곡 외에 교향시, 기악곡, 가곡 등을 작곡하였는데, 조국 핀란드와 민중들의 정신을 세계를 자신의 음악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1957년 9월 20일 92세의 고령으로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아낌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으며 핀란드는 국장(國葬)의 예의를 다해 이 위대한 대음악가를 장송했다. 또한 애국심의 결정체라고도 할 만한 「핀란드아(1899)」는 국민찬가로 선정되었다.

공연정보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입 장 료 : VIP석 2만원,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회원 30%, 초·중·고생 50%, 단체 10인 이상 20%)
관람등급 :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홍재의 지휘로 마련되는 시벨리우스의 탄생 150주년 기념연주회는 서곡과 교향곡에서 시벨리우스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하며 서곡은 바로 핀란드의 애국가이기도한 「핀란드아」로 무겁고 장중하게 열거한다. 이 곡은 1894년 러시아의 압제하에 있었던 핀란드가 그 압박속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애국심 고취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핀란드 민족 고유의 멜로디와 리듬을 사용하며 핀란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메인 프로그램의 교향곡에서는 시벨리우스의 제1번 교향곡으로 함께한다. 이 작품은 시벨리우스가 자신의 조국의 향취 즉, 끝없이 늘어선 숲과 빙하, 거기서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애상을 낭만주의의 끝자락에서 그의 심성을 분출해내고 있는 작품이다.

협주곡에서는 세종대학교 음대 교수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김나영이 함께하며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작품54로 함께한다. 이 작품은 1841년에 작곡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제1악장에 다른 새로운 2개의 악장을 작곡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독주 악기에 비중을 두던 협주곡 양식과는 달리 관현악과의 독주 악기의 일체성 속에 피아노의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향기가 감도는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곡이다.

국내 정상급 피아니스트 김나영은 “음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연주하는 불꽃 같은 피아니스트”, “열정, 몰입, 절제, 강렬한 카리스마로 대변하는 피아니즘의 세계” 등의 국내외 언론으로 호평받고 있는 뛰어난 테크닉을 구사해내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마에스트로 김홍재가 이끄는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깊은 감동의 시간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P R O G R A M

시벨리우스 핀란드아
Finlandia, op.26 / Sibelius

슈만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54
Piano Concerto a minor Op.54 / R.Schumann
피아노 김나영

- 휴식 intermission -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1번, 작품39
Symphony No.1 in e minor, Op.39 / Sibelius



울산시립무용단 제36회 정기공연

장생포

카르멘

PROGRAM

- 프롤로그 - 저 푸른 바다 장생포
- 1장
 - 대지의 춤
 - 장생포의 축제
- 2장
 - 장생포의 위기
 - 바다의 위용(침략)
 - 대지와 바다의 대립
- 3장
 - 약혼녀의 감금과 탈출
- 4장
 - 장생포의 기적
 - 장생포 카르멘(희망)
- 에필로그 - 영원한 장생포

공연정보

일 시 : 2015. 11. 12(목)~13(금) 오후 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VP석 2만원,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관람등급 : 만 5세이상 관람가



예술감독 / 김상덕



특별출연·조안무 / 박이표

12일 주요배역



류호정 (홍이 役)



최미정 (은이 役)



노연정 (순희 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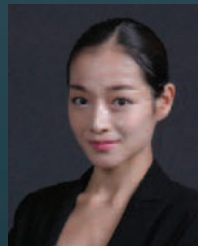
13일 주요배역



오수미 (홍이 役)



하희원 (은이 役)



김수진 (순희 役)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 수중촬영 장면과 대규모 특수효과,
그리고 열정적인 음악과 강렬한 춤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활력 넘치는 장생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다

‘반구대 암각화’, ‘자란’, ‘태화강’ 등 지역의 문화유산 및 상징물을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소개함으로써 무용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장생포의 주민상을 담은 작품 〈장생포 카르멘〉을 오는 11월 12일 (목)과 13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6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집시여인 카르멘의 열정을 고스란히 옮겨 담은 이번 작품은 극의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15시간의 수중촬영을 통해 완성한 생생한 영상과 대규모 특수효과, 그리고 강렬한 음악과 수준높은 안무가 한 데 어우러져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울산시립무용단만의 새로운 대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작품 구성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립무용단 컬렉션 〈이상중후군〉, 한국여인의 초상 〈그대, 논개여!〉, 〈제의_세레모니64〉 등 다양한 작품을 안무, 연출한 박이표씨가 조안무로 작품에 참여하고, 특별출연으로 무대에도 올라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장생포 카르멘〉은 활력 넘치는 장생포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집시의 열정을 가진 여인 홍이와 바다 여인 은이, 그리고 시골처녀 순희의 생활상을 통해 전개되는데, 주요배역으로는 홍이역(役) 류호정 수석단원, 오수미 수석단원, 은이역(役) 최미정 차석단원, 하희원 단원, 순희역(役) 노연정 차석단원, 김수진 차석단원이 발탁되어 12일과 13일 더블캐스팅으로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재미를 더한다.

울산시립무용단 김상덕 예술감독은 “산업도시로 경제 성장을 이룬 울산이지만, 바다를 생계로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삶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다.”면서 “수중촬영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과감하게 시도해 조금 더 사실감 있게, 그리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도전들이 녹아있는 이번 작품이 관객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이끌어낼지 기대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겨울이야기



지휘 / 송유진



출연 / 울산시립교향악단

품격 높은 클래식으로 진한 감동으로 선사하고 있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겨울의 길목인 오는 11월 27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겨울의 정취가 담긴 동·북부 유럽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콥스키, 그리그, 하차투리안의 작품들과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겨울”을 선보이며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겨울을 시작하고자 한다.

러시아 St.Petersburg 국립음대 출신이자 러시아 음악에 정통한 지휘자 송유진이 해설과 지휘로 이끌며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지성호(악장)의 감성있는 바이올린 솔로가 더한 겨울이야기로 관객여러분들과 공감하고자 한다.

공연정보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후 8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전석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OGRAM

그리그 /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작품46, 제1곡. 아침의 기분
Grieg / Peer Gynt suite No.1, Op.46 - I. Morning mood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제1번 작품 71a - 서곡
Tchaikovsky / The Nutcracker Suite No.1, Op.71a - Overture

그리그 / 페르귄트 모음곡 제2번 작품55 - 제4곡. 솔베이지의 노래
Grieg / Peer Gynt suite No.2, Op.55 - IV. Solveig's Song

하차투리안 / 가면무도회 모음곡 “왈츠”
Khatchaturian / Masquerade Suite “Waltz”

그리그 /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작품46 - 제4곡 산속마왕의 궁전에서
Grieg / Peer Gynt suite No.1, Op.46 - IV.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비발디 / 사계 중에서 “겨울” / 바이올린 지성호
Vivaldi / four Seasons “Winter”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제1번 작품71a - “러시아 춤”
Tchaikovsky / The Nutcracker Suite No.1, Op.71a “Trepak”

차이콥스키 / 교향곡 4번 - 4악장
Tchaikovsky / Symphony No. 4 - 4th Movement



울산시립예술단

2015 수능음악회

공연정보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2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관람등급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지역 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울산시립 예술단이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능음악회를 오는 11월 24일(울산시립합창단)과 26일(울산시립교향악단)을 마련 한다.

「수능음악회」는 수능시험을 마친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들에게 그간의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음악감상을 통해 힐링의 기회를 갖게 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연주회이다.



지휘 / 민인기

24일(화) 울산시립합창단

2015년 한 해 동안 개최하였던 연주회의 프로그램인 '가을의 서정', '흑인영가', '재미있는 합창', '히트가요 모음' 등을 총 4부로 꾸며진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울산시립합창단 민인기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작품소개와 해설로 진행된다.

PROGRAM

지휘/해설 : 민인기

I. 가을의 서정

II. Negro Spiritual(흑인영가)

- Joshua fit the Battle
- Swingin' with the Saints

III. 재미있는 합창

- Love
-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 Ritmo

IV. 히트가요 모음

- 소녀시대(힘 내)
- 김보경(혼자라고 생각말기)
- 빅뱅(뱅뱅뱅)



출연 / 울산시립합창단



출연 / 울산시립교향악단



지휘 / 송유진

PROGRAM

지휘 : 송유진
사회 : 김상명
영화 : 아마데우스

〈 연주곡 〉

- 모차르트 –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 영화 “아마데우스” OST –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
- 영화 “아마데우스” OST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 모차르트 – 교향곡 제40번 1악장

26일(목) 울산시립교향악단

음악의 신동으로 불리는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를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의 진행에 영화의 명장면 및 그의 주요작품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해봄으로써 모차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하고 더불어 모차르트의 위대성을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 2015

11월의 작가 박하늬 展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창작품을 발굴하여 울산 전시예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에 「11월의 작가 박하늬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상설전시 공간 '갤러리 씬'에서 개최한다.

박하늬 작가는 지난 5월에 열린 제19회 울산미술대전 전체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작의 기법을 그대로 활용한 또다른 '유한의 본질'을 이번전시에 선보인다.

작가는 '나의 작업이 무한이 시(詩)라면 유한의 요소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다. 무한이 우주라면 그림의 요소는 하나의 별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하는 작업이다.'며 무한을 이루고 있는 유한의 조각들 표현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무한의 세계를 구체화하려 노력하였다.

특정한 대상 재현을 벗어난 비구상작품은 주로 페인팅 작업과 패브릭을 활용한 오브제 기법 위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거친 붓터치에서 물감을 긁어 패턴을 만들기도하고 천섬유에 번지기

기법까지 다양한 질감표현들로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선보인다.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 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은 연중 릴레이 개인전으로 일반 시민 및 지역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예술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고 있다.

전시개요

전 시 명 :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 2015 「11월의 작가 박하늬」
기 간 : 2015. 11. 1(일) ~ 11. 30(월), 30일간
장 소 : 갤러리 씬

| 11월의 작가 프로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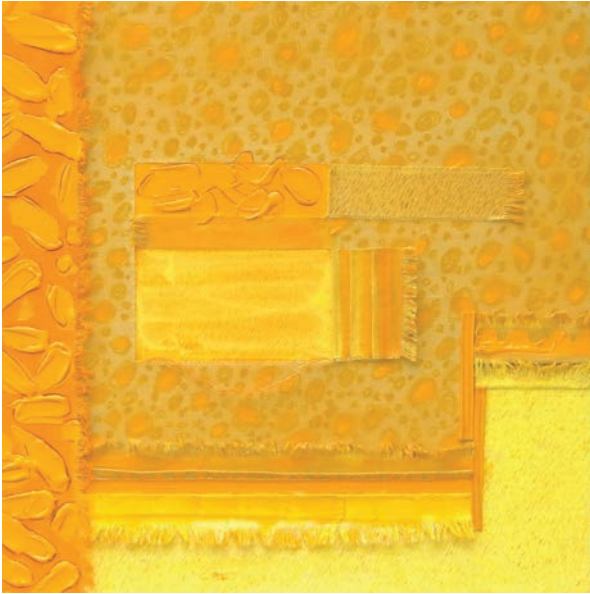


박하늬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단체전〉 2015, Asia Art Network (한천아트갤러리/ 서울)
 울산미술대전 (문화예술회관/ 울산)
 2014 루브루 전시작가전 (Gallery H/ 서울)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태화강둔치/ 울산)
 2013,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경희궁미술관/ 서울시립)
- 〈수상〉 2015, 울산미술대전 전체 대상
 2014, 아트울산2014 역동 & Advance 展 신인작가 우수상
 2013,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울산미술대전 우수상
 세계평화미술대전 우수상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예술을 말하다

함께하는 공연예술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조하나의 Arts Friend

11월 공연 · 전시가이드

공연 · 전시 길라잡이

11월의 공연 · 전시



오만한 오네긴과 타티아나의 엇갈린 사랑

드라마 발레 <오네긴> 보셨나요?

올 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공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함께 선보이는 <오네긴>이 아닐까 합니다. 강수진 씨가 <오네긴>으로 국내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인데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종신 단원인 강수진 씨는 지난 1986년 19세의 나이로 이 발레단에 최연소 무용수로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이 되는 내년 7월 은퇴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현역 은퇴작인 <오네긴>을 우리나라 무대에서 먼저 만나보는 셈입니다. 1965년 4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의해 초연된 <오네긴>은 당시 이 발레단의 예술감독이었던 존 크랑코가 안무한 작품으로, 춤이 드라마를 압도하던 고전발레의 전통 위에 구체적인 스토리와 인물의 심리까지 자세히 표현한 ‘드라마 발레’ 또는 ‘스토리 발레’의 대표작입니다. 국내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이 판권을 보유하고 지난 2009년부터 공연하고 있는데요, ‘오네긴’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푸슈킨의 운문소설,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만나다

‘오네긴’은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이 1831년에 완성한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푸슈킨의 운문소설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더해져 1879년 3월 모스크바 말리 극장에서는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1965년 4월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는 발레 <오네긴>이 초연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귀족 집안의 오네긴은 시쳇말로 ‘엄친아’입니다. 젊고 잘 생긴 데다 폭 넓은 독서와 세련된 매너는 물론 다양한 연애험험까지 보유한 사교계의 스타인데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또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네긴은 무척이나 냉소적인 허무주의자이기도 하죠. 유산 상속



오만한 오네긴

을 위해 죽음을 앞둔 친척 아저씨의 시골 저택에 잠시 머물게 된 오네긴은 친구인 시인 렌스키의 소개로 동네 지주의 두 딸을 소개받는데요. 바로 여주인공 타티아나와 그녀의 동생이며 렌스키의 연인인 올가입니다. 올가는 외적으로 눈에 띄는 데다 성격도 활달한 반면 타티아나는 수수한 외모에 책에 빠져 사는 사색적인 여인이죠. 책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던 타티아나는 오네긴을 보고 첫눈에 반해 이른바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사랑을 고백하는 절절한 편지까지 건네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랑이나 결혼에도 냉소적이었던 오네긴은 타티아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타티아나는 이 일로 크게 상처받습니다.

며칠 뒤 타티아나의 영명축일에 참여한 오네긴은 불편해 하는 타티아나를 보고 스스로도 기분이 언짢아져 자신을 무도회에 데려온 렌스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올가에게 접근합니다. 보란 듯이 올가와 다정하게, 계속해서 춤을 추죠. 그 모습을 보고 질투에 눈이 먼 렌스키는 오네긴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오네긴은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에 말을 건네지 못하고 결국 렌스키의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불행히도 결투에서 렌스키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네긴은 그 길로 시골을 떠나 수년을 방랑하게 되죠. 떠도는 생활에 지친 오네긴은 몇 년 후 퇴역한 한 공작의 파티에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껏 성숙하고 아름다워진 타티아나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공작의 아내가 된 타티아나를 말이지요. 방랑 생활에 지친 오네긴은 타티아나가 마지막 돌파구인 듯 타는 듯한 구애의 편지를 건네지만, 이번에는 타티아나가 그 마음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그 삶에 충실하고 싶다고요.

〈오네긴〉 발레 vs. 오페라

우리나라에서 발레 〈오네긴〉의 무대를 몇 차례 관람했던 저는 영국 런던의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무척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루는 발레 〈오네긴〉을, 다음 날은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을 공연하는 특별한 마케팅 덕분에 이틀에 걸쳐 〈오네긴〉의 발레와 오페라 무대를 모두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두 무대를 비교하며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네긴과 레스킨의 결투장면

발레 <오네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의 테크닉’을 넘어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토리와 주인공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춤이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를 보는 셈이죠. 이것이 드라마 발레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오네긴의 첫 등장이 기다려집니다. 기다란 다리를 느릿느릿 뻗어나가는 그 오만하고 나른한 움직임에서 오네긴의 캐릭터를 짐작할 수 있죠. 타티아나는 어떨까요? 오네긴에게 마음을 빼앗겨 종종걸음으로 무대를 휘젓는 사랑스러운 모습에서 사랑을 거절당해 비통해 하는 모습, 그럼에도 마음을 접지 못하고 몇 번이고 사랑을 호소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이 춤으로 표현되고, 관객들은 그 움직임만으로 그녀의 애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네긴과 타티아나가 다시 만나는 3막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저며 오는데요, 타티아나를 갈구하는 오네긴과 그 마음을 애써 거절하며 돌아서는, 그러나 냉정히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만 그에게 이끌려가는 타티아나의 모습이 무척이나 사실적으로 표현됩니다. 그 어떤 말이 이들의 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발레 <오네긴>을 볼 때면 1막에서는 청춘 남녀의 만남에 싱긋 웃게 되고, 2막에서는 애틋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고, 3막에서는 사랑의 어긋남에 애통함을 느낄 겁니다. 1막과 3막에서 오네긴과 타티아나의 파드되를 비교해 보면 흘러간 시간과 달라진 감정선의 미묘한 간극이 고스란히 전해질 텐데요, 무대에서 구현되는 춤으로 이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레에 이어 관람했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은 러시아어로 무대가 꾸며지고 영어 자막이 제공됐는데요, 어쨌든 ‘노랫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이코프스키가 빚어낸 <예브게니 오네긴>의 현란한 음악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작품을 타 장르의 무대로 만들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원작의 명성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도 재해석과 새로운 창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독립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브게니 오네긴> 역시 러시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인 만큼 소재의 익숙함은 큰 장점이었지만 오페라에 사



오페라

용된 음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기존 작품의 발레 버전 정도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크랑코는 과감히 오페라에 사용된 음악을 제외하고 차이콥스키의 다른 관현악곡이나 피아노곡을 발레 <오네긴>의 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발레 <오네긴>은 오페라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성을 확보했지만, 원작 소설의 스토리에 맞는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은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타티아나가 오네긴에게 편지를 건네는 장면이나 렌스키가 오네긴과의 결투를 앞두고 죽음을 예감하며 올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리아는 언제나 객석에서 큰 박수를 이끌어 내죠.

하지만 오페라 무대의 절절함은 어쩐지 간접적입니다. 음악과 함께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발레와 달리 ‘노래’라는 청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페라에서는 메시지 전달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역시 공연예술이니 시각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오페라 가수들의 연기는 무용수들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무엇보다 20~30대가 주역인 발레 무대와 달리 대부분 이른 나이에 빛을 보기 힘든 오페라 무대에서 메인 가수들은 외모에서 ‘청춘 남녀’를 기대하기는 힘든데요. 오페라의 경우 1막과 3막 사이 등장인물들의 분장에 큰 차이가 없어 풋사랑에 들뜬 풋풋한 타티아나도, 그림자까지 거들먹거리는 오네긴의 오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다. 발레의 ‘자태’를 대신할 오페라의 ‘노래’에서 가창력 이상의 감동을 얻기가 힘들었다고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발레 무대에 마음이 기우는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은 오페라의 주역을 얻기 위해서는 성악가들도 나름의 ‘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연은 관객의 눈과 귀를 함께 만족시켜야 할 예술이니깐요. 그런 차원에서 오페라나 발레 <오네긴>에서 선보이는 19세기 러시아 귀족사회의 모습을 엿보는 재미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무대에 펼쳐지는 유럽과는 또 다른 러시아만의 건축양식과 의상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글_ 윤하정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의 곤충 그림

어린 시절 자연도감을 한참동안 유심히 들여다보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섬세하게 묘사된 세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동식물의 세계를 알게 해주었고,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 무엇을 먹고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고, 천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죽는 지까지도 알게 해주었지요. 익숙한 주변의 동식물이나 곤충도 세밀한 삽화를 통해 보면 새롭게 보이는데, 하물며 이국의 생태는 신기하기 그지없던 것 같네요.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이러 그림들을 모은 책들은 진귀한 수집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감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17~8세기 서유럽이었고, 여기에는 오늘 살펴볼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Maria Sibylla Merian)이라는 한 여성 미술가-과학자의 역할이 큼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물이겠지만, 독일에서는 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로화가 통용되기 이전에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화의 고액권인 500마르크의 주인공이었으니, 그녀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도판1).

메리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위스 출신의 화가인 마테우스 메리안 1세와 네덜란드 출신의 요한나 지빌라 하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화가였지만, 그녀가 세 살 때 세상을 떠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새아버지인 화가 야코프 마렐의 작업실에서의 교육이 그녀의 화가로서의 재능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의 사회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메리안은 체계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곤충에 대

한 열정은 이후 미술과 과학의 역사 양쪽에 모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메리안은 당시 여성 화가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길을 갔습니다. 회화의 위계에서 아래에 있던 정물화, 그 중에서도 꽃그림을 그리는 여성 화가는 여럿 있었지만, 그녀처럼 곤충을 중점적으로 다룬 화가는 그녀가 유일무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곤충이 부패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애벌레와 나비가 별개의 생물이라고 여겼다면 믿으시겠어요? 게다가 애벌레는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이고, 사악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곤충이나 동식물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하던 시대이니 당연히 곤충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없었고요. 18세기에서야 비로소 박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원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애벌레를 키우며 그 과정을 기록할 정도로 곤충 관찰을 즐겼던 메리안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이런 시대의 고정관념을 부인했습니다. 메리안이 엄밀한 논리로 무장한 과학 이론서를 집필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한 장에 그림에 알, 유충, 번데기, 성충, 그리고 먹이가 되는 식물을 함께 그려 넣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배치 방식은, 사실 메리안이 고안해 낸 것이라고 합니다. 메리안은 결혼 후에도 가정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에게 그림과 자수, 곤충 표본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스물여덟에 최초의 작품집인 <꽃 그림책>을 출판한 이



도판 1. 독일의 500마르크 지폐에 수록된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의 초상



도판 3. 메리안, <수리남 곤충의 변태>에 수록된 <카카오 나무와 벌레>, 동판화에 채색, 1705.



도판 4. 메리안, <수리남 곤충의 변태>에 수록된 <구아바 나무와 타란툴라와 개미>, 동판화에 채색, 1705.

도판 2. 메리안, <수리남 곤충의 변태>에 수록된 <바나나와 나방>, 동판화에 채색, 1705.

래, 몇 년마다 계속 작품집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화초와 곤충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곤충 그림책>을 발표하면서 곤충화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메리안은 신두 살의 나이에 또 다른 모험을 강행합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남미 수리남의 열대 우림으로 곤충을 관찰하러 간 것이지요. 당시 기준에서 그녀는 이미 노년이었고, 석 달이 넘게 걸리는 거친 항해와 열대의 험난한 환경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년여 동안 딸과 함께 수리남에 머물며 연구와 수집, 작품 제작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돌아온 뒤 그녀는 일생일대의 거작인 <수리남 곤충의 변태(Metamorphosis insectorum Surinamensium)>를 출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곳에서 접한 이국적인 식물과 그것을 먹고 사는 곤충들이 생생하면서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그림마다 붙어 있는 설명을 보면, 메리안의 관찰력이 어느 과학자 못지 않게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바나나와 나방>(도판 2)이나 <카카오나무와 벌레>(도판 3)를 보면, 유럽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 식용 식물들이 어떤 맛이 나고, 색은 어떻고, 꽃과 열매가 어떠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꽃 주위로는 여기에서 발견한 유충이 자라서 나방이 되는 과정이 함께 보입니다. 혹은 <구아바나무와 타란툴라와 개미>(도판 4)처럼 식물과 곤충, 조류가 한 장의 그림에 모두 등장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개미가 징그러울 법도 한데, 메리안은 이를 꼼꼼히 관찰해 이들이 개미 같은 다른 곤충들뿐 아니라 작은 벌새까지 잡아먹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식물과 곤충의 각 단계를 상세히 관찰해 묘사해 눈앞에 보이는 듯 생생하지만, 다시 보면 크기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애벌레가 매달려 있는 식물 줄기보다 더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알과 성충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그녀의 표현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단계의 상태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보인 곤충의 세계는 이렇게도 기묘모했나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소개한 새로운 세상에 열광했고, 그녀가 수리남에서 가져온 표본뿐 아니라 작품집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학술 언어인 라틴어판 외에 프랑스어판도 출판되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녀의 작품집을 앞 다투어 소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몸소 사람을 보내 이 작품집을 구해왔다는 일화가 말해 주듯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의 탐구욕이 커져가던 이 시기에 메리안의 작업은 막연한 수집이 아니라, 깊고 체계적인 연구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배어나오는 생생한 작품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글_ 황주영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오페라 나비부인



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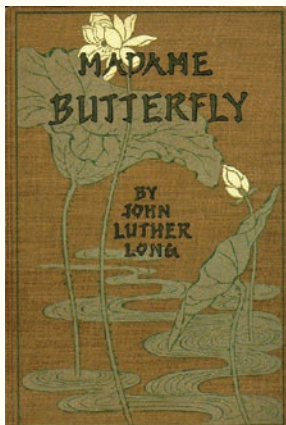
오페라 ‘라보엠’,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룡(John Luther Long 1861~1927)의 소설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라보다 앞서 서양 제국주의 열강에 문을 열었던 일본에서 개국과 함께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곳은 항구 나가사키였다. 나가사키에는 서양인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일본 게이샤들의 영업도 시작되었다. 당연히 이들의 매춘과 국제결혼, 사생아 등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설가 룡의 누나는 1886년 선교사인 남편 빙 코렐을 따라 이런 분위기의 나가사키에서 얼마간 살았다. 이 누나는 나가사키 생활에서 들은 이야기와 경험담을 동생에게 전해주었고 룡은 소설가답게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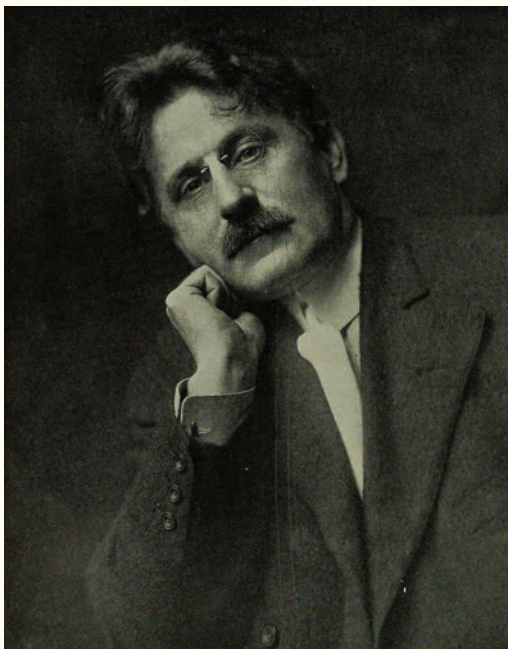
자신이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누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본을 무대로 한 소설과 희곡을 몇 작품 적었다. 특히 누나가 전해들은 게이샤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 ‘나비부인’을 1898년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미국 잡지에 연재하였다.

당시 이국풍이 대유행하던 시기와 맞물려 이 소설은 큰 인기를 끌었다. 물론 룡은 자신의 소설 ‘나비부인’보다 앞서 발간된 이와 비슷한 소재를 다룬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로티의 ‘국화부인(Madame Chrysantheme 1887)’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 ‘나비부인’을 많은 극작가들이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 하였는데, 당시 연출가 겸 극작가로 활약하던 벨라스코(1859~1931 David Belasco)가 그 작품권을 따냈다. 소설에서 묘사해 놓은 부분인 핑커톤이 떠난 이후 초초와 스즈끼를 포함한 초초의 가족생활을, 희곡에서는 핑커톤의 군함이 다시 나가사키에 도착한 날부터 그 다음날 이를 동안 초초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압축하여 간결하면서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 '나비부인' 오리지널 포스터
2. 소설 '나비 부인' 표지



3. 원작자 존 롱
4. 희곡작가 데이비드 벨라스코
5. 초연 지휘자 캄파니니

개설

벨라스코는 희곡 ‘나비부인’을 1900년 3월 뉴욕에서 연극으로 공연하여 대성공을 거둔다. 이 작품은 곧이어 런던 극장가에서 공연되었다. 푸치니는 런던에서 연극 ‘나비부인’을 연극으로 보자마자 영어를 거의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로 오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토스카’의 경우처럼 이미 연극으로 성공을 거둔 작품은 오페라를 만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푸치니는 알고 있었다. 또한 푸치니는 그가 특히 좋아하는 불운한 순정파의 순진한 아가씨인 주인공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연극 ‘나비부인’에서 초초의 기다리는 장면과 마지막 자결장면에서도 푸치니는 큰 감동을 받았다.

푸치니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로 달려가 벨라스코에게 이 작품을 오페라로 만들기 위한 계약을 제안했다. 푸치니는 밀라노로 돌아가서 리코르디 출판사의 줄리오 사장과 이 연극에 대한 오페라화를 논의하였고 대본작가로는 일리카와 자코사로 선정하면서 오페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벨라스코로부터 오페라 화에 대한 승낙이 늦어지고 대본에 대한 푸치니의 주문이 까다로워 1902년 봄에 겨우 대본이 완성되었다. 한창 작곡 진행 중이었던 1903년 2월 푸치니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작곡이 또 늦어져서 1903년 12월 말경에 작곡이 완성된다.

초연

부랴부랴 연습을 하여 1904년 2월17일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캄파니니(Cleofonte Campanini) 지휘로 초연된다. 작곡자와 출연자의 기대 속에 이루어진 초연은 예상과 달리 대실패였다. 초연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매우 냉정했다.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은 푸치니가 음악을 늦게 완성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연습부족이었다. 이유가 어쨌건 출연자들이 실수만 연발하다가 막을 내린 것이다.

그 외에도 눈에 익지 않은 동양풍의 무대, 귀에 익지 않은 동양풍의 음악, 지나치게 긴 2막 등등. 이 실패를 두고 푸치니는 ‘폭력’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라 스칼라극장에서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다.

앞선 오페라들의 연이은 성공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확고한 명성을 얻은 자존심 강한 푸치니였지만 당장 두 번째 공연을 취소한다. 이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음악과 작품 대본 수정에 들어간다. 푸치니는 스칼라극장에서 충보를 되찾아가면서 토스카니니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2막을 1장, 2장으로 나누고 핑커톤 노래를 추가하는 등 수정을 한다.

3개월 후 5월28일 브레시아의 그란데 극장에서 재공연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같은 해 7월 첫 해외공연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토스카니

니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그 후로 세계각지에서 공연하여 오늘날 오페라 '나비부인'의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푸치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초연 이래 다섯 번이나 음악과 대본을 수정하여 1907년 메트로폴리탄 공연에서 비로소 오늘날 세계 각국의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는 최종본 '나비부인'이 탄생한다.

“미미, 무제타, 마농, 토스카에 대한 나의 애정과 ... '나비 부인'에 대한 애정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푸치니는 청순가련형의 주인공 초초를 좋아했다. 그리하여 오페라 속 아름다운 노래는 대부분 초초의 독창과 중창으로 이어진다. 여주인공이 쉬지 않고 무대에 나와 노래 부르는 전형적인 프리마돈나 오페라가 된다.

이 작품은 장면에 어울리는 색채감 있는 분위기와 매혹적인 선율미가 어울려 풍부한 이국정서를 매력적으로 표현해준다. 푸치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와 민요를 인용하여 동서양의 분위기를 묘사하였고 정교한 조바꿈과 동기의 취급, 적합한 악기의 사용, 타악기와 관악기의 고음 사용법, 동양의 5음계 사용으로 이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등장시킨다. 호소력 강한 노래는 모두 푸치니 특유의 유려한 선율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물론 푸치니의 '나비부인'은 일본을 동양 전체로 확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문제도 발생했지만 감성에 충만한 아름다운 푸치니의 선율과 시적인 대본은 사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줄거리

제1막: 무대는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일본식 집. 미국 해군 장교 핑커톤은 집안이 몰락해 게이샤가 된 열다섯 살의 '초초'상(게이샤 예명으로 '나비'라는 뜻)과 일본식 전통 혼례를 치른다. 초초는 핑커톤을 위해 기독교로 개종까지 한다.

나가사키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 샤플레스는 초초의 진심을 알아채고 핑커톤에게 초초가 상처 받지 않도록 잘 해라는 충고를 하지만 핑커톤은 농담으로 가볍게 넘긴다. 핑커톤에게 초초는 일회용에 불과할 뿐이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노래하면서 초초가 결혼식을 위해 등장한다.

혼례식 중에 초초의 숙부 본조가 나타나 개종을 꾸짖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 사실을 안 친척들은 초초와 인연을 끊겠다며 결혼식장을 떠난다. 핑커톤은 슬픔에 잠긴 초초를 상냥하게 위로하며 둘은 첫날밤을 맞이하는 사랑의 이중창을 부른다. 이 작품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이면서,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제2막 1장: 그 후 3년이 흐른다. 초초는 핑커톤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하녀 스즈키는 초초의 슬픔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초초는 반드시 핑커톤이 돌아오리라 확신하면서 스즈키가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6. 1902년 연극 '나비부인'주역 Varelle Bergere

7. 〈오페라 속 장면〉 사진출처: Newyork.com





8. 1932 할리우드 영화 '나비부인' 9. 일본인 최초 '나비부인' 소프라노 타마키 미우라

남편이 돌아온 적이 없다고 말하자 심하게 화를 내며 흐느낀다. 그러나 핑커튼은 이미 본국에서 결혼했다. 샤플레스 영사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핑커튼의 편지를 들고 초초에게 찾아오지만 차마 그 사실을 말을 하지 못한다. 초초는 샤플레스에게 핑커튼의 어린 아들을 인사시키면서 핑커튼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한다.

영사가 돌아간 뒤 예포 소리가 들리고 핑커튼이 탄 링컨호가 항구에 정박한 것을 확인한 초초는 사랑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감격에 겨워 온 집안을 꽃으로 꾸민다. 초초와 아이는 치장을 하고 밤새 기다리다가 스즈키와 아이는 지쳐 잠이 들고 초초는 혼자 꽃꽂이 앉아 있다.

제2막 2장: 새벽 동이 트고 뱃사람들의 '허밍 코러스'가 들려온다. 새벽이 되어 초초는 잠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한다. 그 사이 핑커튼과 그의 부인 케이트, 영사가 집에 도착한다. 핑커튼은 이 모든 상황이 괴로워서 피해버리고, 케이트는 초초에게 아들을 친자처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다.

초초는 핑커튼이 직접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한다. 모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초초는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병풍 뒤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칼로 자결한다. 핑커튼이 돌아와 '버터플라이'를 외쳐 부르는 가운데 오페라가 막이 내린다.

*주요 아리아

- '나비부인의 등장장면 :바다에도 육지에도 봄바람이.. Quanto cielo, quanto mare' (1막)
- '사랑의 2중창: 저녁이 온다네 Viene la sera..달콤한 밤이여! 수많은 별들이여! Dolce notte! Quante stelle!' (1막)
- '어떤 갠 날 Un bel di vedremo' (2막1장)
- '허밍 코러스 Coro a bocca chiusa' (2막2장)

글_송종건

궁중복식으로 무속장단에 춤을 추다

나라의 태평성대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의 태평무太平舞.

이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버선발의 발디딤 기교를 들 수 있다. 겹걸음, 잣은 걸음, 새발걸음, 잉어걸음, 뒷꿈치 걷기, 뒷꿈치 찌기, 뒷꿈치 찌고 들기, 무릎들어 걷기 등 다양한 발놀림과 현란한 발디딤에 흥과 신명이 표출되는 춤이다. 또한 현란한 기교의 발디딤과 상반되는 상체에서는 절도 있는 호흡과 중후한 절제미의 춤사위가 느껴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춤사위에 걸맞게 음악장단은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 푸살, 터벌림, 올림채, 연결채, 발빠드레, 겹마치기, 도살풀이 가락 등 보통사람이 들으면 박자를 세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데 이러한 장단들을 충분히 숙지해야 각각의 진정한 춤사위의 맛을 살릴 수 있다.

태평무 유래설 또한 다양한데 무속의 장단과 동작이 굿판의 동작과 유사하여 무당들이 추던 기복 춤이라는 무속무용 유래설과 궁중복식 차림의 태평무가 나라의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 궁에서 추어온 것이라는 궁중 무용설이 있다. 그리고 국가적 행사 때 국왕으로 가장한 이가 태평성대를 송축하는 춤이 있었는데, 이는 팔관회 부활 때 체계화 되고 재해석 되는 과정 중 왕의 가장무가 태평무로 전승되었다는 추측의 팔관회 유래설 등이 있다. 하지만 생성 과정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남아있는 문헌과 무용인들의 구전으로 전승의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초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이 경기 무속 춤을 재구성하여 추었던 춤으로 굿하는 곳에서 그 음악을 듣고 반해서 태평무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가무악이 세밀히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터라 한성준은 무용가이기도 했지만 북을 치며 장단을 치던 명고수이기도 했었다. 때문에 그는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을 것이라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다른 춤들에 비하여 독특한 춤사위와 복잡한 무속장단을 이해하고 새로이 재구성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춤은 창안당시에는 독무형식의 남성 춤이었으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왕과 왕비 2인무형식으로 추다가 왕이 의자에 앉으면 왕비가 왕 앞에서 모든



한성준

과정을 추었다. 이때 2인무로 추었던 한성준의 손녀딸 한영숙이 왕 춤을 그리고 현재 예능보유자인 강선영이 왕비 역을 맡아 공연하였다. 한성준의 의해 창작되어진 이후 손녀인 한영숙과 제자 강선영에게 전승되었고, 이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춤의 형식이나 복식 등에서 서로 상이한 형태를 갖추면서 각각의 자신의 춤으로 유파를 이루며 서로 다르게 전승되고 있다.

한영숙류와 강선영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궁중에서 공주와 왕비의 대례복으로 착용하였던 복식으로 활옷과 한삼을 걸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태평무 자체는 강선영을 예능보유자로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었다. 강선영류 태평무의 복식은 화려한 활옷과 한삼을 걸치고 큰머리와 머리에 꽂는 장식으로 떨잠 그리고 금박과 오색 명주로 수놓은 뒷 땡기를 착용하여 화려함을 볼 수 있으며, 춤에는 엄숙하고 장중함이 배어있으며 울동이 크고 팔사위도 화려하다. 춤을 추는 중간에는 활옷을 벗어 상궁에게 전달한 후 당의 차림으로 춤사위가 계속되어 지는데 의상에 따른 춤의 변화도 강선영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퇴장하면서 끝을 맺는다.

한영숙류 태평무는 사군자중 난란으로 비유되는데, 복식부터 단순화시켜 활옷과 한삼 없이 궁중에서 평상복으로 입었던 당의차림으로 처음부터 입고 추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도 단정하게 쪽머리에 옥비녀, 그리고 검은색 솜 족두리를 착용하고 마지막 포즈도 강선영류와 다르게 무대 위에서 끝을 맺는다. 강선영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백하고 절제됨 그리고 절도 있고 무게감 있는 춤사위를 내포한다. 특히 한영숙류태평무는 초장, 중장, 종장의 내용으로 나뉘는데 신과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위로하고 달래어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3단계 과정이다.

초장은 춤의 도입부로 다섯 방향 즉 오방을 두루 사용하며 팔사위로 신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고 마지막 춤사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우주의 자전을 의미한다. 중장에는 접신과장으로 신을 어르고 달래며, 한 해 동안의 복을 빌고 잡귀를 쫓아내는 지신밟기와 같은 의미로 발디딤 동작들이 주를 이룬다. 종장의 마지막 춤사위에서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중앙으로 돌아온다.

마지막 종장은 풀이의 장으로 신과 대화과정에서 대립과 적대감의 힘을 모두 풀어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과장으로 빠른 잣은 물리와 맵입 장단으로 끝을 맺는데 종말 부분도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끝을 맺는다.

각각의 종마다 맺는 부분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맺게 되는 한영숙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주공간에서 자전축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리듬 우주속 시간과 자전과 공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술성을 볼 수 있다.

글_조하나



태평무 : 강선영



태평무 : 한영숙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제35회 울산예술제 “연극협회 공연”

공연정보 11월 1(일) 15: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S석 15,000원
공연개요 극단 푸른가시의 '풍선'을 공연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대리기사와 탈북자의 이야기로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그린 연극

제9회 울산전국전통연희축제

공연정보 11월 1(일) 10: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풍물연희, 탈춤연희, 민속연희, 무속연희, 전문예인집단연희 등, 민족의 삶과 함께해온 악.가.무.극이 일체화된 종합적 예술로써 연희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공연

구립교향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3(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섬

울산생활과학고 윈드오케스트라 3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3(화)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생활과학고 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윈드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행진곡, 클래식 소품 협주곡, 성악협연곡, 경음악 등의 연주프로그램으로 공연

2015 서덕출, 신고송 동요합창제

공연정보 11월 4(수)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동요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동요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주옥같은 서덕출 시인과 신고송 시인의 시를 새롭게 동요로 만들어 울산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공연

울산 CBS 창립 11주년기념 가을 음악회

공연정보 11월 5(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CBS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오케스트라와 이웅& 서울재즈빅밴드가 함께하는 깊어가는 가을밤 CBS 창립 11주년 음악회 공연

울산태화강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6(금)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태화강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가곡, 대중가요등 울산 태화강 합창단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

김소영민족소리원 제6회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소리비 4'

공연정보 11월 6(금) 2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소영민족소리원
입 장 료 S석 10,000원
공연개요 전통판소리와 국악가요를 넘나들며 전통과 현대의 소리가 대중들에게 좀더 친숙하고 깊이감있게 다가가는 공연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7(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독주악기의 유명한 협주곡들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연주를 하며,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기참이 묻어나는 음악회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2015 청소년 어울림마당 폐막 축제

공연정보 11월 7(토) 16: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공업탐청소년문화의집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015 울산청소년 어울림마당 '꿈의 날개' 폐막을 알리고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자의 문화 교류의 장을 펼치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폐막 축제 공연

제35회 울산예술제 “어울림 콘서트 및 빅밴드연주회”

공연정보 11월 8(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예술제 일환으로 열리는 빅밴드 연주회는 팝, 재즈, 영화음악, 국악, 합창등의 다양한 형태의 연주곡으로 공연

울산콘서트콰이어 제5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10(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콘서트콰이어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성악인들로 구성된 울산콘서트콰이어 정기 연주 공연

남성합창단 '울사내' 제5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12(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남성합창단 '울사내'
입 장 료 S석 10,000원
공연개요 울산을 테마로 한 곡들을 중심으로 울사내합창단의 힘차고 우렁찬 하모니 합창 공연

울산농요복원 재연공연

공연정보 11월 14(토)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농요보존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논 갈고, 물 푸고 모심기, 논매기 타작 소리 옛날 추억을 담은 울산 농요복원 재연공연

제7회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15(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영화음악 OST 및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향연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15(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성악, 기악, 방송댄스곡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을 소년소녀합창단이 그 기량을 마음껏 뽐내보이는 공연

울산광역시 레یدی싱어즈 제2회 정기 연주회

공연정보 11월 17(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레یدی 싱어즈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합창, 기악, 신나는 안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대중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열린음악회

2015년 창작무용극 '전화맹'

공연정보 11월 18(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무용협회
입 장 료 S석 15,000원
공연개요 신라말과 고려초에 활동한 울산의 예기 전화맹에 관한 일대기를 창작무용극화 하면서 울산 탄생사를 가미한 대역사 무용극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더 스트링스 아마추어 챔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18(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더스트링스아마추어챔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가
요, 클래식등 유명한곡들을 드 스트
링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다

제2회 울산배꽃 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20(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화, 드라
마, CF 속 클래식으로 구성된 노래들
을 울산배꽃 합창단과 함께 노래한
다.

Beautiful Life Wonderful Concert!!!

공연정보 11월 21(토)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삼성정밀화학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뮤지컬 오케스트라와 유명 뮤지컬의
진수만을 끌라서 뮤지컬 배우들의 감
미로운 가창력을 즐길 수 있는 가을
밤 음악회

삼신원드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22(일)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삼신원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영화음악 등 삼신원드오케스
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9회 정기공연 '同樂'

공연정보 11월 22(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국악연주단 민들레
입 장 료 S석 10,000원
공연개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아름다
움을 전통음악의 빛깔로 새롭게 표현
하는 프로그램

제6회 금파국악예술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26(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금파국악예술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5현 가야금 합주가 가야금 중주 가
야금 산조12현 가야금 신곡등을 보여
주며 연주단의 반주에 맞추어 민요를
부르며 관객들과 소통하고 사물놀이
로 공연의 흥을 돋구어 주며 다양한
공연을 펼침

제26회 울산합창 페스티벌

공연정보 11월 28(토) 13:00,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음악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깊어가는 가을 울산지역 민간 합창단
체 및 시립합창단의 합창 페스티벌

전통연희 극 "아버지"(불광불급)

공연정보 11월 28(토) 15:00,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풍물예술단 버숨새
입 장 료 S석 10,000원
공연개요 장면전환식위주의 전통국악공연을
전통음악을 바탕에 두고 시대의 아이
콘 등, 다양한 문화코드를 주제로 설
정,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
현하고, 새로운 공연 양식으로 누구
나 즐기고, 공감 할 수 있는 공연

프리모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월 29(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프리모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청소년들의 예술적기량을 마음껏 펼
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향유할 수 있
는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멋진 음악
회

전시 가이드

EXHIBITION

제7회 울산여성사진가회 한일 교류전

전시기간 11. 4(수)~11. 9(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여성사진가회
전시내용 울산여성사진가회와 일본 후쿠오카 여성사진가회 회원들의 연례 회원작품 교류 전시로, 울산여성사진가 10명과 일본여성사진가 11명의 사진작품 총 50점 전시

제16회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4(수)~11. 9(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
전시내용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초등사진교과교육연구회의 열 여섯번째 이야기 '내 마음의 만남'전으로, 회원 30명의 마음속에 그려오던 동경 또는 이미지를 표출하는 사진작품 총 120점 전시

제8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11. 4(수)~11. 9(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포토라이프클럽
전시내용 울산의 4대강(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외항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가는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23명 회원들의 순수창작, 기록사진, 응용창작 사진작품 총 50점 전시

제36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

전시기간 11. 4(수)~11. 9(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여류작가회
전시내용 울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미술인들의 모임인 울산여류작가회의 정기전으로,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29명 회원들의 개성 있는 미술작품 총 29점 전시

울산서예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11(수)~11. 16(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결산하는 정기전으로, 회원 300명의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전각 등 다양한 서예작품 총 300점 전시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정기전

전시기간 11. 18(수)~11. 23(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전시내용 생태문화도시 '울산 까마귀 떼'를 주제로, 현대미술작가회 회원 50명과 시민들이 함께 떼 까마귀에 대해 연구하고 작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오비미락-鳥飛美落>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작품 총 100점 전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합동전

전시기간 11. 25(수)~11. 30(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전시내용 회원 상호간 문화교류의 장 마련 및 저변확대와 볼거리를 제공코자 울산사진씨클연합회 14개 동아리의 대표작품들을 선별하여 합동전시회 개최로 총 260점 전시

11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11 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제7회 울산여성사진가회 한일 교류전 11. 4(수)~11. 9(월) 6일간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 박하늬展 11. 1(일)~11. 30(월) 30일간					
02										
03										
04							제16회 초등사진교과 교육연구회 회원전 11. 4(수)~11. 9(월) 6일간			
05										
06										
07										
08										
09	제8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11. 4(수)~11. 9(월) 6일간									
10										
11							제36회 울산여류 작가회 정기전 11. 4(수)~11. 9(월) 6일간			
12										
13										
14										
15										
16	울산서예협회 회원전 11. 11(수)~11. 16(월) 6일간									
17										
18										
19										
20										
21	울산 현대미술 작가회 정기전 11. 18(수)~11. 23(월) 6일간									
22										
23										
24										
25										
26	울산사진씨클연합회 합동전 11. 25(수)~11. 30(월) 6일간									
27										
28										
29										
30										
					빛나는 희망등불전 11. 20(금)~16. 1. 28(목) 70일간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1 _대공연장

01		01	[대관공연] 제35회 울산예술제 "연극협회 공연" 11. 01(일) 15:30	[대관공연] 제9회 울산전국전통연희축제 11. 01(일) 10:00 야외공연장
02		02		
03	[대관공연] 구립교향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11. 03(화) 19:30	03	[대관공연] 울산생활과학고 윈드오케스트라 3회 정기연주회 11. 03(화) 16:00	
04	[교향악단] 롯데삼동과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11. 04(수) 17:00	04	[대관공연] 2015 서덕출,신고송 동요합창제 11. 04(수) 19:00	
05	[대관공연] 울산 CBS 창립 11주년기념 가을 음악회 11. 05(목) 19:30	05		
06	[대관공연] 울산태화강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1. 06(금) 19:30	06	[대관공연] 김소영민족소리원 제6회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소리비 4' 11. 06(금) 20:00	
07	[대관공연]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11. 07(토) 19:30	07	[대관공연] 2015 청소년 어울림마당 폐막 축제 11. 07(토) 16:00 야외공연장	
08		08	[대관공연] 제35회 울산예술제 "어울림 콘서트 및 빅밴드연주회" 11. 08(일) 19:30	
09		09		
10		10	[대관공연] 울산콘서트라이어 제5회 정기연주회 11. 10(화) 19:30	
11		11	[기획공연] 뒤편 11. 11(수) 19:30	
12	[무용단] 장생포 카르멘 11. 12(목) 20:00 11. 13(금) 20:00	12	[대관공연] 남성합창단 '울사내' 제5회 정기연주회 11. 12(목) 19:30	
13		13		
14		14	[대관공연] 울산농요복원 재연공연 11. 14(토) 15:00	
15	[대관공연] 제7회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15(일) 19:30	15	[대관공연]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11. 15(일) 19:00	
16		16		
17		17	[대관공연] 울산광역시 레이디싱어즈 제2회 정기 연주회 11. 17(화) 19:30	
18	[대관공연] 2015년 창작무용극 '전화영' 11. 18(수) 19:30	18	[대관공연] 더 스트링스 아마추어 챔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11. 18(수) 19:30	
19		19	[기획공연] 스위트콘서트 11. 19(목) 20:00	
20	[교향악단]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11. 20(금) 20:00	20	[대관공연] 제2회 울산배꽃 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11. 20(금) 19:30	
21	[대관공연] Beautiful Life Wonderful Concert!!!! 11. 21(토) 18:00	21		
22	[대관공연] 삼신윈드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11. 22(일) 17:00	22	[대관공연]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9회 정기공연 '同樂' 11. 22(일) 17:00	
23		23		
24	[합창단] 2015 수능음악회 11. 24(화) 11:00	24	[기획공연] 모닝콘서트 11. 24(화) 11:00	
25		25	[기획공연] 뒤편 11. 25(수) 19:30	
26	[교향악단] 2015 수능음악회 11. 26(목) 11:00	26	[대관공연] 제6회 금파국악예술단 정기연주회 11. 26(목) 19:30	
27	[교향악단] 겨울이야기 11. 27(금) 20:00	27		
28	[대관공연] 제26회 울산합창 페스티벌 11. 28(토) 13:00, 19:30	28	[대관공연] 전통연희 극 "아버지"(불광불급) 11. 28(토) 15:00, 19:00	
29	[대관공연] 프리모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11. 29(일) 19:30	29		
30		30		

11 _소공연장·야외공연장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20% 할인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침’,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연 회 비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2만원	1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5만원	2만5천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1만원)
5년	8만원	4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10년	15만원	7만5천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1만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88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시 30%이내 할인(일반 2매, 가족 4매, 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8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2015 울산시립예술단 Ⅱ 고3 수능생들을 위한

수능유크악회

2015년 11월 24일(화), 26(목)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